

“엠펙스 확산 막아라”... 고위험군 접종 시작

고위험군에 예약방법·접종기관 별도 안내 “진네오스 예방효과 86%... 이상반응 적어”

남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엠펙스(MPOX/원숭이두창) 고위험군의 노출 전 백신 접종이 8일 시작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엠펙스 백신 ‘진네오스’(JYNNEOS) 접종 의향을 밝힌 고위험군 예약자는 최소 165명으로 이날 접종에 참여한다.

엠펙스 환자는 지난 4일 0시 기준 누적 54명이 확인됐다. 이 중 5명을 제외한 49명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확진 관정을 받았다.

질병청의 역학조사 결과(3일 0시 기준)가 나온 누적 확진자 52명 중 남성성은 50명으로, 이 중 20~40대가 47명(94%)을 차지했다. 엠펙스 환자 진료 주 주사침에 찔려 감염된 의료진 1명을 제외한 51명은 성접촉 등 밀접접촉으로 감염됐다.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높아지자 방역 당국은 노출 전 접종 대상자를 의료진, 진단의원, 역학조사관, 실험실 인력 외에도 엠펙스 고위험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염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성접촉이나 피부접촉 등 밀접접촉을 한 사람, 그 중에서도 노출 후 14일 이내인 경우 노출 후 접종 대상이 된다. 18세 이상 성인만 해당된다.

방역 당국은 엠펙스 고위험군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엠펙스 예방접종 권장 대상에 준해 관리 중이다.

미국 CDC의 엠펙스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은 엠펙스 감염자에 노출된 사람, 성적 파트너가 2주 내 엠펙스에 확진된 경우 등 직접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을 비롯해 남성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거나 6개월 내 성병 진단을 받았거나 성적 파트너가 1명 이상인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포함됐다.

아울러 ▲6개월 이내 성매매 또는 엠펙스 전과 지역에서 성행위를 경험한 사람 ▲엠펙스 감염 위험이 있는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 ▲HIV 등 면역 억제 요인이 있으면서 향후 엠펙스



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고위험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엠펙스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과 같이 피하에 1회 주사하는 방식이다. 엠펙스 3세대 백신의 고위험군 접종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백신 감염 예방효과는 86%로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도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접종부위 통증, 주사부위 발적, 부기, 가려움증 등 경증에 대

부분을 차지한다. 방역 당국은 시·도별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을 안내하고 9일 이후 접종자도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는 진네오스 백신 5000명분이 도입돼 비축된 상태다. 이날부터 노출 전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청은 기존 백신 비축량 외에 추가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나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내일(Rail)하우스' 시행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광주건축사업소·보금자리사랑회봉사단은 최근 멘토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광주 용봉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일(Rail)하우스'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강진소방, 어린이날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

강진소방서는 지난 7일 어린이날을 맞아 강진중앙초등학교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가족 안전 119체험장을 운영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가정의 달 맞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담양소방서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행사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오늘은 나도 영웅소방관!' 체험장 운영

광양소방서는 지난 7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안전한 어린이날 행사 진행을 위한 119현장상황실과 즐거운 소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오늘은 나도 영웅소방관' 소방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장보고 수산물 축제 '해양경찰 홍보부스' 인기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기간 해양경찰 홍보부스 운영과 해상 안전관리 지원에 나섰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한 총력 대응 TF 회의 개최

순천경찰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마약류 범죄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이르면 이번 주 하향 조정

위기평가회의서 심각→경계 확정...일정 미정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8일 오후 5시 제17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위기평가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지역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의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살펴보면 1단계로 감염병 위기단계는 현재 최고단계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발표했던 국내 발생현황 통계도 주간 단

위로 바뀐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제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체제로 바뀐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020년 2월23일 구성돼 약 3년 2개월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주요 방역 사항을 결정해 왔다.

급주 중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일선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격리 단축 시점은 빨라도 다음 주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김재한기자



'2023 어버이날 행사 및 박옥선 어르신 상수연 잔치'

박옥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어버이날 행사 및 박옥선 어르신 상수연 잔치'에서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법원 "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지병이 있는 사람이어서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 4명이 손해·생명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 2곳은 원고들에게 각 3875만원·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70대 남성 A씨는 2018년 10월16일 오전 5시45분 해외 지역 호텔 노천탕에서 목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날 오전 7시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자녀 4명(원고들)은 "아버지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숨진만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2곳은 "A씨가 우발적 외래 사고가 아닌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졌다"며 "A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사실 조화 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정의는 A씨가 온천욕 중 순환기계 질환 악화로 목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T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도 A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했던 A씨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A씨의 사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졌으므로 호흡이 불가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한다"며 "A씨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숨진 만큼,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